

문화예술 여가활동 참여자의 외향성과 스트레스, 문화적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의 인과적 관계: 지속적 소셜댄스 참여자를 중심으로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xtroversion and Stress, Cultural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in Culture and Arts Leisure Activities: Focused on Participants in Continuous Social Dance

윤홍권, 신아란, 권혁인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Hong-Gwon Yoon(shsy3247@naver.com), Ahran Shin(robbyking924@gmail.com),
Hyeog-in Kwon(hikwon@cau.ac.kr)

요약

본 연구는 문화예술 여가활동 참여자의 외향성과 스트레스, 문화적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 지속적 소셜댄스 참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첫째, 소셜댄스 참여자의 외향성은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둘째, 외향성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셋째, 외향성은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넷째,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생활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부적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외향성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문화예술 여가활동에서 참여자의 외향성과 문화적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는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 중심어 : | 소셜댄스 | 외향성 | 문화적 자기효능감 | 생활만족도 | 스트레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xtroversion, cultural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and stress of participants in culture and arts leisure activities, focusing on persistent social dance participants. The first results showed that extroversion of social dancing participants had a positive effect on cultural self-efficacy. Second, extroversion has a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ird, extroversion did not affect stress. Fourth, cultural self-efficacy had a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Fifth, cultural sel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on stress. Sixth, life satisfac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stress. At last, cultural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had negative mediator effect on the relation of extroversion and stres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extroversion, cultural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factors in explaining stress.

■ keyword : | Social Dance | Extroversion | Cultural Self-efficacy | Life Satisfaction | Stress |

I. 서론

현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다발적으로 노출되며,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문화예술 여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1][2].

여가시간 확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여가활동 욕구 변화와 함께 다양한 여가활동 중에서도 특히 댄스스포츠(dance sports)가 주목 받고 있다[3]. 댄스스포츠는 커플댄스로 중세 서민들의 춤에서 출발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제 문화 예술 스포츠인 댄스스포츠와 세계인이 일상에서 즐기는 소셜댄스(social dance)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4]. 댄스스포츠에 대한 용어는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는데, 문화예술 참여활동으로써 커플댄스는 경쟁적 스포츠의 개념인 댄스스포츠 보다는 즐기는 소셜댄스의 성격이 짙다.

국내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향유되고 있는 소셜댄스는 식민지 노예 사회에서 흑인들의 문화에 뿌리를 둔 살사(salsa), 탱고(tango), 스윙(swing)이다. 국내에서 소셜댄스를 즐기고 있는 인구는 점차 증가되어 오고 있으며[5], 동호인을 중심으로 13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6]. 소셜댄스 참여자는 대체로 직장인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참여하고 있다.

소셜댄스는 지속적 문화예술 여가활동으로 직장인의 생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4][6-8]. 소셜댄스는 스포츠적인 측면의 운동효과 뿐만 아니라 파트너와의 스킨십, 예의범절 등을 익힘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더욱 고무시켜주며[7], 음악과 움직임을 통해 인지적 감각과 감성의 발달시키고, 파트너와의 교감을 통해 사회적 기능과 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4]. 소셜댄스 참여는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생활만족도를 높이기도 한다[8]. 이와 같이 소셜댄스는 문화예술 여가활동으로써 직장인의 생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문화예술 여가활동의 효능과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내재적 인지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간의 인지과정 및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특성인 성격(性格)[9]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격은 문화예술 여가활동에서 여가만족, 스트레스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10], 특히 소셜댄스와 같이 신체접촉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활동에서 인지적, 감성적 발달 및 변화 수준에 민감하게 개입될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히 사회인지론 중 행동에서 중요한 동인으로[11], 인지구조가 개입되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행동을 할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자신감을 말한다[12]. Bandura가 제안한 자기효능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예술콘텐츠에 대한 자신감과 활동을 통해 받은 감정이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적 상태’로서 문화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으로 도입할 수 있다[13].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획득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식, 영감, 자신감 등을 문화적 자기효능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의 생활에서 지각하는 생활만족도 또한 인지적 관점에서 스트레스에 개입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생활만족이 스트레스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14][15]. 생활만족은 개인이 살아가는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혹은 개인의 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요구, 욕구의 충족감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16], 생활만족은 인지적 측면에서 생활전반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현대인의 문화예술 여가활동 참여에서 참여자의 외향성과 문화적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는 스트레스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은주, 박수정[17]의 2009년 연구에 의하면 댄스스포츠 활동을 통해 참여자는 성격의 변화를 이룰 수 있고 대인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김은혜[18]의 2003년 연구에서는 댄스스포츠 참여는 스트레스를 줄이며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민영, 이유우, 한주희[19]의 2015년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참여활동은 성격(외향성, 내향성)을 매개로 스트레스를 조절

한다고 하였다. 이는 문화예술 여가활동으로써 소셜댄스는 스트레스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참여자의 성격 중에서도 외향성이 스트레스 조절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외향성이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8][10][20-29]. 먼저 외향성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와 관련하여 모화숙, 박미라, 하대현[20]의 2013년 연구에서 Big5 성격 중 외향성이 자기효능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라고 주장하였으며, 박성미[21]의 2003년 연구에서는 외향적 교사가 내향적 교사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외향성과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전수경, 황정희[22]의 2017년 연구에서 외향성과 성실성이 대학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으며, Lucas & Fuita[23]의 2000년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행복이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Danner, Snowden & Friesen[10]의 2001년 연구에 따르면 개방적인 사람은 스트레스에 강하고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여 외향성은 행복과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외향성은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와 관련하여 Cakar[24]는 2012년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최덕철, 신석민[25] 또한 2014년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윤홍권, 권혁인[8]의 2018년 연구에서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Jerusalem & Schwazer[26]의 1992년 연구에 따르면 높은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 경험을 완충하는 반면 낮은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를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영신, 손주연, 송옥란[27]은 2017년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하 집단이 상 집단

에 비해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Danner et. al[10]는 생활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에 강하고 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한다고 하였으며, 유영현[28]은 생활만족과 가정생활만족은 스트레스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선행연구가 본 연구의 추론과 변인 간 인과관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한 바와 같이 소셜댄스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여가활동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29], 소셜댄스와 같은 신체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을 가진 활동은 더욱 그러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 여가활동 효과와 관련하여 성격, 문화적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셜댄스를 향유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참여자의 외향성과 스트레스, 문화적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의 인과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셜댄스와 같이 신체접촉과 교감 및 협력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다양한 인지 발달을 촉진하는 문화예술 여가활동에서 외향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요인의 인지 구조적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소셜댄스 참여자의 외향성과 스트레스, 문화적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향성은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외향성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외향성은 스트레스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에 부적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여성제, 생활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곱제, 외향성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 효능감,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소셜덴스를 지속적으로 향유하는 직장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현재도 소셜덴스를 향유하는 수도권, 천안, 대구, 대전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SNS와 온라인 소셜덴스 동호회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안내하여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수된 215개 자료 중 불성실한 답변으로 판단되는 11개 자료를 제외하고 204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분포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92	45.1
	여자	112	54.9
학력	고졸	9	4.4
	전문대졸	37	18.1
	대학교졸	134	65.7
	대학원 이상	24	11.8
나이	20대	47	23.0
	30대	139	68.1
	40대	18	8.8
소셜덴스 경력	3개월-1년미만	35	17.2
	1년이상-2년미만	42	20.6
	2년이상-3년미만	36	17.6
	3년이상	91	44.6
주간 소셜덴스 참여시간	10시간 미만	82	40.2
	10시간이상-20시간미만	80	39.2
	20시간이상-30시간미만	33	16.2
	30시간이상-40시간미만	5	2.5
	40시간이상	4	2.0

분석 결과 성별에서는 여성의 비율(54.9%)이 남성(45.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서는 대학교졸의 비율(65.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덴스 경력은 3년 이상(44.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간 소셜덴스 참여시간은 10시간 미만

이 40.2%, 10시간 이상이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외향성을 독립변수,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를 매개변수,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외향성, 문화적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스트레스는 Likert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진단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3.1 외향성

외향성 측정을 위해 Costa, McCrae[30]가 개발하고, 이경임[31]이 번안한 NEO PI-R(personality inventory)의 외향성 요인 6개 문항을 진단도구로 활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대인관계에서 외향성 및 활동성에 대한 자가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 문화적 자기효능감

소셜덴스 참여자의 문화적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Bandura[32]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중심으로 최배석과 변상호[13]가 개발한 문화적 자기효능감 진단도구 8개 문항을 진단도구로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자기효능감에 근거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자신감, 이해력, 영감, 통제지각, 도전의식에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진단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3.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측정을 위해 글로벌 생활 만족도 측정을 위해 개발된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33]의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진단도구로 활용하였다. 진단도구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한국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 인식에 대해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4 스트레스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Cohen, Kamarck & Mermelstein[34]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Perceived stress scale) 6개 문항을 변안하여 진단도 구로 활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동기좌절 인지와 예측되는 동기좌절 상황 인지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연구절차 및 방법

먼저 진단도구의 타당도 검토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토를 위해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조절변수의 다중공선성 검토를 위해 요인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계수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구조적 관계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 추출방법으로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요인 회전방법으로는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활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 추정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으며, 간접효과 및 총 효과의 유의미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방법, 95% 신뢰구간 분석을 활용하였다. 상기된 분석을 위하여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진단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타당도 및 신뢰도 검토를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지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외향성 1, 6번과 문화적 자기효능감 7번 문항에서 공통성이 .4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3개 문항을 제외하고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25개 문항 중 3개 문항을 제외한 22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841$, 구형성

표 2. 진단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요인	문항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Cronbach's α
외향성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매우 즐겁다.	-.118	-.015	.163	.673	.781
	나는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다.	-.069	.226	.135	.818	
	나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좋다.	.123	-.007	-.024	.746	
	나는 명랑하고 유쾌한 사람이다.	.015	.137	.179	.790	
문화적 효능감	내가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은 나를 보다 교양인으로 만든다.	-.107	.669	.175	.198	.861
	나는 문화예술 관련 대화를 할 때 자신 있게 나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097	.755	.009	.135	
	나는 문화예술에서 내 인생의 롤-모델을 찾는다.	.133	.735	.272	.058	
	나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감을 얻는다.	.059	.764	.133	.128	
	나는 목표를 세워 문화예술 생활을 추구한다.	.132	.702	.294	.061	
	나는 문화예술 향유는 교양인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	-.066	.720	.172	.036	
생활 만족도	나는 어렵더라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콘텐츠를 향유하고 싶다.	.128	.687	.112	-.216	.886
	대체적으로 나는 내 이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199	.277	.824	.015	
	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 여건들을 갖고 있다.	-.207	.210	.789	.07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274	.170	.774	.235	
스트레스	나는 이제까지의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성취하였다.	-.144	.235	.763	.183	.906
	만일 내 삶을 다시 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겠다.	-.200	.195	.701	.106	
	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기분이 상했다.	.757	.051	-.235	.066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내가 통제 할 수 없다고 느꼈다.	.824	-.036	-.105	-.047	
	나는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꼈다.	.804	-.040	-.189	.054	
	나는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대처할 수 없다고 느꼈다.	.810	-.015	-.042	-.086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화가 났다.	.854	.141	-.192	-.041		
나는 어려운 일들이 극복할 수 없을 만큼 높게 쌓여 있다고 느꼈다.	.789	.044	-.174	-.013		

Kaiser-Meyer-Olki(KMO)=.84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2582.750$ df=231, $\rho < .000$

검정치 $\chi^2=2582.750$, $df=231$, $p<.000$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요인들의 각 문항들의 요인 적재치 분석 결과 모두 .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factor외에 다른 factor에서 .4 이상의 적재치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MO>.8$, 구형성 검사의 통계적 유의미성, 요인 적재치 .5 이상, 교차 요인 적재치가 .4 이하일 때 판별타당도 및 집중타당도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35], 본 연구의 진단도구는 적절한 수렴, 판별타당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설명된 총 분산은 64.692%로 나타나, 양호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요인에서 $\alpha=.781$ 이상의 신뢰도 지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위의 [표 2]와 같으며, 삭제된 문항 내용은 ‘나는 나와 만나는 사람 대부분을 좋아한다.’, ‘나는 자주 웃는다.’, ‘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작품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려 한다.’이다.

다음으로 문항과 잠재요인의 구조적 관계 및 요인 간 관계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도 분석을 위해 바람직한 적합도 지수인 CDMI/DF, TLI(NNFI), CFI, RMSEA[36]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CMIN/DF는 카이제곱 지수를 자유도로 나눈 값으로 3보다 작으면 적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37], TLI와 CFI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으며 .85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38] 또한, RMSEA가 $<.05$ =좋은 적합도, $.05\sim.08$ =괜찮은 적합도, $.08\sim.10$ =보통의 적합도, $>.10$ =나쁜 적합도 기준으로 제안되고 있다[39]. 분석 결과 CMIN/DF=2.527, TLI=.857, CFI=.874, RMSEA=.087로 나타나 본 연구에 활용된 문항 및 요인의 적합도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요인에 대한 문항의 표준화 회귀계수 검토를 통해 요인에 대한 문항의 개념타당도를 검토하였다. 표준화 경로계수가 .5 이상일 때 개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40], 22개 문항은 모두 .5 이상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든 표준화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 선정된 22개 문항 자료는 본 연구의 잠재요인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

료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을 검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세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진단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문항	β	S.E.	t
외향성	외향성2	0.505		
	외향성3	0.883	0.361	6.923***
	외향성4	0.574	0.29	5.865***
	외향성5	0.776	0.544	4.894***
문화적효능감	효능감1	0.628		
	효능감2	0.659	0.135	7.817***
	효능감3	0.772	0.181	8.798***
	효능감4	0.747	0.156	8.597***
	효능감5	0.75	0.180	8.62***
	효능감6	0.668	0.180	7.898***
	효능감8	0.593	0.181	7.189***
생활만족도	생활만족1	0.862		
	생활만족2	0.813	0.076	14.185***
	생활만족3	0.839	0.067	14.918***
	생활만족4	0.778	0.068	13.247***
	생활만족5	0.68	0.098	10.901***
스트레스	스트레스1	0.77		
	스트레스2	0.774	0.089	11.54***
	스트레스3	0.778	0.081	11.597***
	스트레스4	0.731	0.080	10.78***
	스트레스5	0.881	0.089	13.417***
	스트레스6	0.774	0.078	11.539***
CMIN/DF=2.527, TLI=.857, CFI=.874, RMSEA=.087				

*** $p < .001$

2.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요인 간 다중공선성 여부 검토를 위해 독립변수, 매개변수의 문항 평균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요인	1	2	3
1. 외향성	1		
2. 문화적 자기효능감	.212**	1	
3. 생활만족도	.291**	.453**	1

** $p < .01$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유의미한 상관계수가 생활만족도와 문화적 자기효능감에서 .453로 나타나 본 연

구의 요인들은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가설 검증

3.1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먼저 연구 모형 적합도 지수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CMIN/DF=2.612, TLI=.855, CFI=.874, RMSEA=.089로 나타나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연구가설 검증

연구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1], [표 5], [표 6]과 같으며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향성은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474, t=3.182^{***}$),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소셜댄스 참여자는 외향성이 높을수록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외향성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560, t=3.178^{**}$),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외향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외향성은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b=0.168, t=0.744$),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 소셜댄스 참여자의 외향성만으로는 스트레스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568, t=5.139^{***}$),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섯째,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592, t=3.743^{***}$),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 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반대로 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여섯째, 생활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813 = -6.383^{***}$),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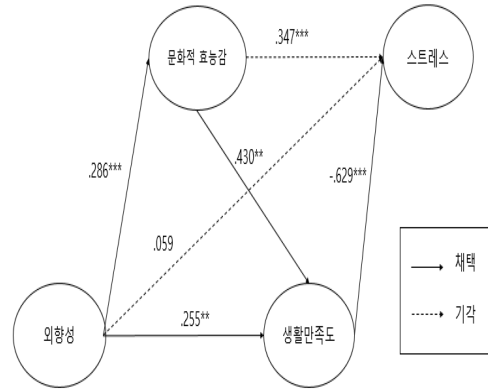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분석(표준화 경로계수)

표 5. 직접효과 검증

경로	b(β)	S.E.	t	채택 여부
외향성 → 문화적 자기효능감	0.474(.286)	0.149	3.182***	채택
외향성 → 생활만족도	0.560(.255)	0.176	3.178**	채택
외향성 → 스트레스	0.168(.059)	0.168	0.744	기각
문화적 자기효능감 → 생활만족도	0.568(.430)	0.111	5.139***	채택
문화적 자기효능감 → 스트레스	0.592(.347)	0.158	3.743***	기각
생활만족도 → 스트레스	-0.813(-.629)	0.127	-6.383***	채택

p < .01, *p < .001

표 6. 직·간접 효과 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외향성 → 문화적 자기효능감	.286***		.286**
외향성 → 생활만족도	.255**	.123**	.378**
외향성 → 스트레스	.059	-.139**	-.080
문화적 자기효능감 → 생활만족도	.430***		.430**
문화적 자기효능감 → 스트레스	.347***	-.271**	.076
생활만족도 → 스트레스	-.629***		-.629**

p < .01, *p < .001

일곱째, 외향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23, $p < .01$),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외향성과 생활만족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향성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의한 간접효과

는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39, $p < .01$),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향성과 스트레스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는 외향성과 스트레스를 완전 매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에 의한 간접효과는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271, $p < .01$), 생활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만족도는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의 직접효과는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효과는 이질적인 결과를 보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화예술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서 참여자의 외향성이 문화적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를 매개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셜댄스 참여자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셜댄스 참여자 204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통해 진단도구의 타당성, 신뢰성 검토 과정을 거쳐 도출된 최종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참여자의 외향성은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댄스 참여에 있어서 외향성이 높을수록 문화예술 자신감, 이해력, 영감, 통제지각, 도전의식 함양에 유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둘째, 외향성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댄스 참여자는 외향성이 높을수록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외향성은 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만으로는 스트레스를 설명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외향성이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10][19]와 이질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스트레스의

복잡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는 잠재적 원천과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생성되고 표출되는데, 잠재적 원천으로써 환경적 요인, 조직적 요인, 개인적 요인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천을 받아들이는 각 개인은 서로 다른 인지구조를 바탕으로 이를 해석하고 표출하게 된다[41]. 이와 관련하여 어운경[42]은 교육청 전문상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외향성은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조절변수로 직무스트레스를 줄인다고 보고하면서, 내·외향성이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대처 전략을 조절변수로 추가하여 직무스트레스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는 환경적 원인과 개인의 특성, 대처 방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활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27][43]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스트레스의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불특정하게 일어나는 반응이며[44], 생애 주요 사건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외부의 자극들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형성된다[45]. 소셜댄스 참여는 사람, 장소, 음악, 개인적 성격 및 특성 등이 다방면으로 빈번하게 개입된다. 이와 같이 소셜댄스는 지속적인 외부 자극을 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는 인간의 지각된 욕구와 지각된 반응능력의 괴리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므로[46], 문화예술에 대한 강한 효능감과 자신의 능력이 괴리될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는 스트레스와 소셜댄스

의 특성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생활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댄스 참여자는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일곱째, 외향성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외향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향성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이질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생활만족도를 매개로 결국 스트레스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외향성과 스트레스를 완전매개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셜댄스 참여자의 생활만족도가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한 결과이다.

연구의 결론을 종합하면 소셜댄스 참여자의 외향성이 높을수록 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활만족도를 높여, 상승된 생활만족도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높은 외향성을 바탕으로 지나친 문화적 자기효능감을 가질 경우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댄스 참여자의 외향성은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를 매개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향성과 문화적 자기효능감 발달이 문화예술 여가활동의 효과 및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소셜댄스 뿐만 아니라 지속적, 교감, 협력 등의 특징을 가진 성격이 유사한 문화예술 여가활동에서도 외향성이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를 매개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개입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여가활동 교육자 및 참여자는 외향성, 문화적 자기효능감 인지 및 발달 지향을 통해 여가만족 및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나친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본인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파트너와의 갈등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지나친 자신감과 욕심보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생활만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문화예술 여가활동 참여에서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조절과 관련하여 성격을 인지의 출발점으로 고려하였으며, 문화예술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인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외향성이 독립변수로서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와 함께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참여자의 외향성과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는 문화예술 여가활동에서 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을 바탕으로 차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소셜댄스에 참여하는 직장인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가 소셜댄스 참여만의 효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복수의 문화예술 여가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순수한 활동 효과를 검토하고 나아가 활동 유형에 따라 참여자의 성격에 따른 인지 과정의 차이, 활동 효과의 차이를 검토하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를 높였으나, 스트레스도 높이는 이질적인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자기효능감이 현실과의 괴리, 파트너와의 갈등 등이 스트레스를 높인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현대인이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활동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자신감과 욕심, 질투 등이 여가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여가활동이 생활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요인 간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김명주, “여대생의 교양무용 몰입경험이 수업만족 및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18권, 제3호, pp.193-204, 2013.
- [2]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2016.
- [3] 김현나, “댄스스포츠 참가자의 여가제약과 여가 지속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0권, 제2호, pp.115-126, 2006.
- [4] 박현숙, “소셜댄스의 사회문화적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제56권, 제1호, pp.369-381, 2017.
- [5] 김경래, “댄스스포츠 진흥방안,” 체육연구논문집, 제11권, 제1호, pp.15-26, 2004.
- [6] 한상호, “한국 댄스스포츠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3호, pp.45-54, 2016
- [7] 이종길, 송대진, “사회과학분야: 댄스스포츠에서 경험하는 행복감의 유형과 특성: Q 방법론적 접근,” 한국무용과학회지, 제32권, 제3호, pp.43-64, 2015.
- [8] 윤홍권, 권혁인, “직장인의 소셜댄스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42권, 제1호, pp.1-13, 2018.
- [9] V. Phares and B. E. Compas, “Adolescents’ subjective distress over their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58, No.5, pp.596-603, 1990.
- [10] D. D. Danner, D. A. Snowdon, and W. V. Friesen, “Positive emotions in early life and longevity: findings from the nu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0, No.5, p.804, 2001.
- [11]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Macmillan, 1997.
- [12] A. Bandura, “Self-efficacy conception of anxiety,” Anxiety research, Vol.1, No.2, pp.77-98, 1988.
- [13] 최배석, 변상호, “사회경제적 지위가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 콘텐츠 소비향유와 지식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제10권, 제2호, pp.9-37, 2015.
- [14] 천상순, 최소영, “유방암 환자의 질병단계에 따른 가족 지지 스트레스 및 삶의 질과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0-19, 2010.
- [15] L. Sousa and S. Lyubomirsky, “Life satisfaction. Encyclopedia of women and gender: Sex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the impact of society on gender,” Vol.2, pp.667-676, 2001.
- [16] 김구배, 심갑용, 이복숙, 오희화, “회계학 전공 대학생의 성격유형이 회계학 성적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pp.579-598, 2009.
- [17] 정은주, 박수정, “댄스스포츠 활동의 진지한 여가 참여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23권, 제3호, pp.119-132, 2009.
- [18] 김은혜, “댄스스포츠 참가자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5호, pp.121-133, 2003
- [19] 이민영, 이유우, 한주희, “문화예술 활동과 중년 여성의 심리적 웰빙: 스트레스와 성격의 조절적 매개역할,” 여가학연구, 제13권, pp.1-24, 2015.
- [20] 모화숙, 박미라, 하대현, “Big5 성격요인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제27권, 제3호, pp.761-781, 2013
- [21] 박성미, “예비보육교사의 성격유형과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영유아보육연구, 제9권, pp.45-77, 2003
- [22] 전수경, 황정희, “대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성격 특성, 학교환경인식의 관계,” 인문사회21, 제8권, 제3호, pp.699-713, 2017.
- [23] R. E. Lucas and F. Fujita, “Factors influencing the relation between extraversion and pleasant

-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9, No.6, 2000.
- [24] F. S. Çaka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of young adults,”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Vol.5, No.6, pp.123-130, 2012.
- [25] 최덕철, 신석민, “감정지능,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와 생활만족간의 구조적 관계와 운동의 조절효과,” *교육이론과 실천*, 제2권, 제12호, pp.83-105, 2014.
- [26] M. Jerusalem and R. Schwarzer, “Self-efficacy as a resource factor in stress appraisal processes,” *Self-efficacy: Thought control of action*, USA Routledge is an imprint of the Taylor & Francis Group, pp.195-213, 1992.
- [27] 박영신, 손주연, 송옥란, “성인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대처,”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23권, 제2호, pp.295-332, 2017.
- [28] 유영현, “여가생활 및 가정생활 만족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해양경찰공무원과 일반경찰공무원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11호, pp.191-206, 2014.
- [29] 오윤선, 김지연, 박주영, 김은영, “직장인의 여가활동 유형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8권, 제1호, pp.797-815, 2002.
- [30] P. T. Costa and R. R. McCra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 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NEO-FFI):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orporated, 1992.
- [31] 이경임, *한국인의 NEO-PI-R 요인구조와 부적응 집단의 프로파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32]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191-215, 1977.
- [33] E. D. Diener, R. A. Emmons, R. J. Larsen, and S.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49, No.1, pp.71-75, 1985.
- [34] S. Cohen, T. Kamarck, and R. Mermelstein,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24, No.4, pp.385-396, 1983.
- [35] 최창호, 유연우,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비교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10호, pp.103-111, 2017.
- [36] J. F. Hair, W. C. Black, B. J. Babin, R. E. Anderson, and R. L. Tatham,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2010.
- [37] K. A. Bollen, “A new incremental fit index for general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Vol.17, No.3, pp.303-316, 1989.
- [38] 홍세희,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제19권, 제1호, pp.161-177, 2000.
- [39] M. W. Browne and R. Cudeck,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1993.
- [40] C. Fornell and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pp.39-50, 1981.
- [41] S. P. Robbins and M. C. Butler, *Organizational behavior: Concepts, controversies, and applic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pp.171-176, 1993.
- [42] 어윤경, “전문상담교사의 내·외향성,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진로교육연구*, 제30권, 제2호, pp.103-125, 2017.

- [43] 조강혜, 노형봉, “자아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집단효능감의 매개변수 역할을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제50권, pp.174-187, 2013.
- [44] H. W. Krohne, “Stress and coping theorie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Behavioral Sciences, Vol.22, pp.15163-15170, 2002.
- [45] A. D. Kanner, J. C. Coyne, C. Schaefer, and R. S. Lazarus, “Comparison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Vol.4, No.1, pp.1-39, 1981.
- [46] J. E. McGrath,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stress*, ILLINOIS UNIV AT URBANA DEPT OF PSYCHOLOGY, 1970.

권혁인(Hyeog-in Kwom)

정회원



- 1995년 ~ 현재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10년 ~ 현재 :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비즈니스생태계, 비즈니스모델

저자 소개

윤홍권(Hong-Gwon Yoon)

정회원



- 2017년 ~ 현재 :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문화예술교육, 문화융합, 문화정책

신아란(Ahran Shin)

준회원



- 2016년 ~ 현재 :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문화마케팅, 미술시장